

18.08.27(월)~18.08.31(금)

## 1. 전주 주가 추이

단위: pt, 원, 십억원, 배, %

	현재가	Mkt. Cap.	PBR (2018F)	PER (2018F)	ROE (2018F)	Performance					Weekly Net Buy			공매도 거래대금	
						1 W	1 M	3M	6M	YTD	Institution	Foreigners	Pension	1W	1M
KOSPI	2,323	1,396,093	1.0	9.4	11.2	1.3	1.2	-4.1	-4.3	-5.9	-246	1,113	66	1,806	7,666
KOSDAQ	817	160,132	2.6	19.6	13.6	2.3	5.3	-7.1	-4.7	2.3	92	173	-10	497	2,191
보험	17,178	19,238	0.6	8.6	7.2	-0.5	-4.1	-4.7	-18.4	-18.7	-47	5	-21	23	105
증권	1,849	18,579	0.8	8.8	9.4	3.3	2.1	-13.0	-12.9	-6.9	24	15	11	24	96
삼성생명	92,500	18,500	0.6	8.1	7.1	1.1	-3.9	-10.2	-23.9	-25.7	-9	5	-9	5	18
한화생명	4,850	4,212	0.4	6.8	5.8	0.9	-6.2	-12.9	-27.7	-29.8	-4	1	-1	2	6
ING생명	34,800	2,854	0.8	8.2	9.5	-2.9	-17.5	-13.4	-34.1	-34.8	-3	1	-1	1	5
동양생명	6,570	1,060	0.4	10.2	4.3	0.5	-11.3	-7.7	-8.6	-13.6	-1	0	-0	0	0
삼성화재	265,000	12,554	1.0	11.9	8.7	-1.9	-2.9	5.8	-8.3	-0.7	-16	-1	-4	7	23
DB손해보험	64,000	4,531	0.9	6.6	13.0	-3.2	-0.8	9.4	-7.9	-10.1	-10	5	-3	3	22
현대해상	37,200	3,326	0.8	6.1	14.2	-1.2	1.5	9.3	-9.9	-20.9	-6	3	-5	3	20
메리츠화재	18,250	2,075	1.1	7.7	14.9	-1.6	-0.8	-11.0	-20.1	-22.3	5	-9	2	2	5
한화손해보험	6,970	814	0.6	5.5	11.2	3.9	5.0	-1.8	-19.9	-14.4	-0	1	0	0	1
삼성증권	32,350	2,889	0.6	7.9	8.1	1.4	-0.5	-12.3	-18.3	-11.6	-9	8	-6	1	11
미래에셋대우	8,220	5,411	0.7	9.2	7.9	3.0	1.0	-12.6	-11.4	-10.6	-5	11	1	5	30
NH투자증권	13,450	3,785	0.8	9.6	8.5	5.5	3.5	-15.1	-5.9	-3.2	24	-10	8	8	23
한국금융지주	71,300	3,973	0.9	7.1	14.3	4.5	-0.1	-24.1	-9.2	3.3	18	-14	1	4	12
키움증권	92,200	2,038	1.1	7.7	16.6	2.6	-0.8	-26.5	-7.0	5.3	7	-5	-0	6	10

자료: 개별 보험사,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,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

## 2. 전주 동향

보험	<p><b>보험업종 약세 시현:</b> 전주 보험업종 약세를 시현하였음. 주 초반 위안화 강세에 따른 신흥국 환율 안정 기대감이 신흥국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으로 연결되며 KOSPI 및 KOSDAQ의 반등세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축소되었기 때문임. 또한 주중 지속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손해보험사에 대한 실적 우려도 일부 반영되었다고 판단됨</p> <p>▶ <b>신한금융지주의 ING생명 인수 급주 중 결론:</b> 신한금융지주는 급주 중 임시 이사회를 열고 ING 생명 지분 59.15%를 인수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임. 이를 통해 인수 가격 등이 확정되면 급주 중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었음. 현재 ING생명 주주 입장에서는 신한금융지주의 인수가격 보다는 이후 진행 방향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. 투자자들은 과거 금융지주사사 금융사를 인수하는 경우 공개매수/주식수합 등의 방식을 통해 지분 전부를 매입하여 unlisting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음. 물론 아직 신한지주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.. 높은 지분율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들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. 인수가 확정된다면 ING 생명의 주가는 펀드멘털 요인보다는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보도 및 발표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</p>
----	---

증권	<p><b>증권업종 강세 시현:</b> 전주 증권업종은 강세를 시현하였음.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KOSPI 및 KOSDAQ의 반등이 나타났으며 그동안 크게 하락한 증권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.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무역전쟁 및 나프타 재협상에 대한 기대감 등이 증권업종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됨</p> <p>▶ <b>신용융자이자율 낮출까...증권사들, 11월께 조달금리 공개:</b> 증권사의 신용융자 자금의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급투협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음. 과거 수수료 및 금리의 원가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수료 및 금리가 인하 되곤 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</p>
----	---

## 3. 주간지표 업데이트

	전주	YTD	Monthly							MoM	Quarterly					
			18.03	18.04	18.05	18.06	18.07	18.08 누계	3Q17		4Q17	1Q18	2Q18	3Q18 누계	QoQ	
일평균거래대금	조원	17년대비, %							조원	%					조원	%
KOSPI+KOSDAQ	9.2	2.0	12.4	14.3	15.0	12.4	9.0	8.8	-2.1		8.2	11.8	13.8	13.9	8.9	-36.5
KOSPI	5.4	0.4	6.9	7.8	9.1	7.5	5.5	5.2	-5.2		5.2	6.0	7.0	8.1	5.4	-34.1
KOSDAQ	3.9	4.4	5.5	6.5	5.9	4.9	3.4	3.5	2.7		3.0	5.8	6.8	5.8	3.5	-39.8
신용잔고	조원	YTD, %							조원	%					조원	%
KOSPI+KOSDAQ	11.3	14.3	11.3	12.2	12.5	11.8	10.8	11.3	3.8		8.3	9.8	11.3	11.8	11.3	-4.6
KOSPI	5.7	27.4	5.4	6.0	6.2	6.0	5.5	5.7	2.7		4.0	4.5	5.4	6.0	5.7	-4.7
KOSDAQ	5.6	3.4	5.9	6.2	6.3	5.8	5.3	5.6	5.0		4.3	5.4	5.9	5.8	5.6	-4.4
국고채금리[기말]	%	YTD, bp							%	bp					%	bp
1년	1.73	-9.5	1.89	1.85	1.85	1.85	1.83	1.73	-10.0		1.53	1.85	1.89	1.85	1.73	-12.1
3년	1.91	-20.5	2.22	2.22	2.20	2.12	2.13	1.91	-21.5		1.89	2.13	2.22	2.12	1.91	-21.2
5년	2.10	-23.3	2.43	2.49	2.48	2.35	2.36	2.10	-26.0		2.08	2.35	2.43	2.35	2.10	-24.9
10년	2.31	-18.2	2.62	2.72	2.70	2.56	2.57	2.31	-26.0		2.37	2.47	2.62	2.56	2.31	-24.5
약정 MS	%	17년대비, %p							%	%p					%	%p
삼성증권	6.1	0.2	6.2	6.4	6.1	6.0	6.1	6.0	-0.0		6.2	6.0	6.2	6.2	6.0	-0.1
미래에셋대우	12.1	-0.5	13.1	13.2	12.8	12.3	12.4	12.2	-0.2		12.7	13.2	13.3	12.8	12.3	-0.5
NH투자증권	6.9	0.9	6.3	6.4	6.4	6.4	6.5	6.9	0.4		5.7	6.4	6.3	6.4	6.7	0.3
한국금융지주	5.5	-0.3	5.5	5.5	5.2	5.1	5.3	5.4	0.1		6.1	5.8	5.7	5.3	5.4	0.1
키움증권	17.2	0.7	17.1	18.5	18.2	17.9	16.9	17.4	0.5		15.3	17.4	17.5	18.2	17.1	-1.1

자료: KOFIA, Check, KRX

## 4. 급주 전망

보험	<p>급주 보험업종은 시장 정도의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난해 위안화 절상(환율 하락)에 대한 기대감이 신흥국 화폐까지 및 주식시장의 반등의 빌미를 제공하였지만 트럼프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% 관세 부과(2,000억원달러 규모) 결정으로 인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금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임. 지난주 말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와의 나프타 재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또한 무산되며 급주에도 대외 뉴스의 영향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됨</li> <li>소수의견이 나왔지만 지난주 한국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으며 부진한 경기상황이 반영되며 장기채권 금리는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였음</li> <li>급주 보험업종 자체적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 ING 생명의 신한지주 피인수 역시 시장의 경쟁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급주 보험업종은 대외 변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</li> </ul>
----	--

증권	<p>증권업종은 전주에 이어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강도는 약해질 것으로 전망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격 매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반등 속에서 동반 상승하였지만 급주 KOSPI 및 KOSDAQ의 반등이 지속되기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임. 전주 위안화 강세 기대감 →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 기대감의 연결고리가 전주 금요일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25% 관세 대상 확대 결정이 이루어지며 급주에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</li> <li>8월 일평균거래대금은 8.8조원으로 7월 9.0조원 대비 감소하였으며 ELS 조기상환은 2.9조원으로 7월 1.7조원 대비 증가하였지만 2분기 평균 4.9조원에는 못미치는 수준으로 부진한 펀드멘털 이어지고 있기 때문임</li> </ul>
----	---

5. 금주 일정

일자	국가	내용	전기치	예상치
9월 4일	미국	ISM 제조업지수	58.1	57.7
	미국	캐나다와 나프타 재협상/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		

6. 전주 뉴스/자료 Review

뉴스	<p>▶ <b>'4% vs 2%' 車보험료 인상을 두고 손보업계-금융당국 온도차 (조선비즈)</b> 보험사는 3~4%대 선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2%를 넘어서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임. 7월 자동차 손해율은 한화가 90.6%로 가장 높았고 현대(88.9%), KB(87.8%), 삼성(86.8%), DB(85.4%), 메리츠(84.5%)임</p> <p>▶ <b>[공정거래법 개편안] 삼성 지주사 전환 길 막힌다…신규 지주사 상장자회사 지분율 30% ↓ (조선비즈)</b> 새로 설립되는 지주사의 자회사/손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 상향, 적대적 M&amp;A와 무관한 계열사 합병에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,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(다만 상장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15% 한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)</p> <p>▶ <b>10개월 기다린 DGB금융… 내달 하이투자증권 품는다 (한국경제)</b> 다음달 12일 금융위원회는 경제회의를 열고 DGB의 하이투자증권 인수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</p> <p>▶ <b>[ING생명 M&amp;A] 노조 "7년 고용안정보장 요구"…신한 "수용 어렵다 (더벨)</b> 보도에 따르면 MBK와 신한은 가격 및 딜 조건 조성을 위한 논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임. 빠르게 진행된다면 8월말까지 SPA 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 존재</p> <p>▶ <b>'초우량' 삼성전자 덕분에…자본확충 부담 덜 삼성생명 (머니투데이)</b> 삼성전자 신용등급 반영하여 집중위험 산정(K-ICS 적용시), 현재 주식 위험액 8~12%에서 실질적 위험액은 15~20% 수준이 될 것으로 보도됨</p> <p>▶ <b>[단독] 증권사 신용용자, 조달금리 공시한다 (머니투데이)</b> 증권의 신용용자 자금을 어떤 가격에 조달하였고 얼마의 가산금리를 붙여서 제공하는지 금투협 홈페이지에 공시 추진</p> <p>▶ <b>종신보험에 칼날 겨는 금감원…생보업계 '촉각' (데일리안)</b> ING·동양·KDB·DB 등 4개 생보사 대상 검사 진행, 연금 상품인 것처럼 판매 '악습'…불완전판매 온상</p> <p>▶ <b>[MT리포트] 불완전판매 해도 책임 없는 GA, 배상은 보험사만 (머니투데이)</b> 머투에서 G.A 채널에 대한 문제점을 시리즈로 보도하였습니다. 불완전 판매 가능성, 커진 규모에 적절한 책임부여 필요 등이 보도 되었습니다. 채널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보도임</p> <p>▶ <b>한화손보, 해외 후순위채 최대 4억 달러 발행 검토 (연합인포맥스)</b> 최대 4억 달러(약 4,446억원 규모)의 해외 후순위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음.</p> <p>▶ <b>[단독] 금융위, '헤지펀드 성과보수' 판매사 수취 허용 (대한금융신문)</b> 만약 현실화 되다면 증권사나 은행의 실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… 좀 어이가 없습니다.</p> <p>▶ <b>보험계약대출 60조 돌파.. '불황형 가계빚' 눈덩이 (이데일리)</b> 약관대출 증가 관련 뉴스임.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규투자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됨. 보험계약이 담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리스크는 0에 가깝기 때문임</p> <p>▶ <b>'신용용자이자율 낮출까'…증권사들, 11월께 조달금리 공개 (연합인포맥스)</b> 11월 경 금투협 홈페이지에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공개할 예정임. KTB, 케이프, 메리츠증권 증권 등은 신용이자율 인하 이벤트를 하고 있음. 일정 부분의 이자율 인하가 4분기 중 이루어 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됨</p> <p>▶ <b>[단독] KB증권 '폼수' 논란…금감원 조사 저울질 (매경)</b> 우리銀·신한지주 채권발행서 주간사 말고도 가격왜곡 경향, 간접적 참여를 통해 금리가 하락하고 KB가 물량을 확보하였다는 의혹 뉴스임. 사실 여부는 확인이 필요함</p> <p>▶ <b>터키궤 충격에 자금 1조 이탈… DB운용, MMF 환매 연기 (한경)</b> 터키에 투자하고 있는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 증권의 부실화 여부로 카타르국립은행의 ABCP를 편입한 MMF에 대한 환매가 나오고 있음</p>
----	--

7. Global Peers

		현재가 (Local)	Mkt. Cap. (USD bn)	PBR (FY18F)	PER (FY18F)	ROE (FY18F)	ROA (FY18F)	Performance (%)				
								1 W	1 M	3M	6M	YTD
한국	KOSPI	2,323		1.0	9.4	11.2	3.1	1.3	1.2	-4.1	-4.3	-5.9
	보험	17,178		0.6	8.6	7.2	0.7	-0.5	-4.1	-4.7	-18.4	-18.7
	삼성생명	92,500	16.6	0.6	8.1	7.1	0.7	1.1	-3.9	-10.2	-23.9	-25.7
	한화생명	4,850	3.8	0.4	6.8	5.8	0.4	0.9	-6.2	-12.9	-27.7	-29.8
	ING생명	34,800	2.6	0.8	8.2	9.5	1.1	-2.9	-17.5	-13.4	-34.1	-34.8
	동양생명	6,570	0.9	0.4	10.2	4.3	0.3	0.5	-11.3	-7.7	-8.6	-13.6
	삼성화재	265,000	11.2	1.0	11.9	8.7	1.3	-1.9	-2.9	5.8	-8.3	-0.7
	DB손해보험	64,000	4.1	0.9	6.6	13.0	1.2	-3.2	-0.8	9.4	-7.9	-10.1
	현대해상	37,200	3.0	0.8	6.1	14.2	1.2	-1.2	1.5	9.3	-9.9	-20.9
	메리츠화재	18,250	1.9	1.1	7.7	14.9	1.4	-1.6	-0.8	-11.0	-20.1	-22.3
	한화손해보험	6,970	0.7	0.6	5.5	11.2	0.9	3.9	5.0	-1.8	-19.9	-14.4
	증권	1,849		0.8	8.8	9.4	1.0	3.3	2.1	-13.0	-12.9	-6.9
	삼성증권	32,350	2.6	0.6	7.9	8.1	0.9	1.4	-0.5	-12.3	-18.3	-11.6
	미래에셋대우	8,220	4.8	0.7	9.2	7.9	0.7	3.0	1.0	-12.6	-11.4	-10.6
	NH투자증권	13,450	3.4	0.8	9.6	8.5	0.9	5.5	3.5	-15.1	-5.9	-3.2
	한국금융지주	71,300	3.6	0.9	7.1	14.3	1.1	4.5	-0.1	-24.1	-9.2	3.3
	키움증권	92,200	1.8	1.1	7.7	16.6	2.3	2.6	-0.8	-26.5	-7.0	5.3
일본	Nikkei225	22,865		1.7	16.2	10.6	2.0	1.2	1.5	3.1	7.9	0.4
	보험	1,030		0.8	10.6	7.0	0.9	-0.1	-0.1	0.1	7.8	-2.9
	Dai-ichi Life Holdings	4,338	27.7	2.4	50.6	4.7	2.6	-1.6	-5.4	18.4	17.8	47.7
	Japan Post Insurance	2,494	13.5	0.7	16.4	4.6	0.1	3.0	2.2	1.8	-7.2	-5.8
	Tokio Marine Holdings	5,237	35.3	1.0	14.3	7.3	1.1	-1.5	-2.0	-1.2	7.4	1.9
	증권	389		0.8	9.9	7.4	0.6	1.3	0.8	-4.8	-8.3	-10.5
	Nomura Holdings	509	16.7	0.6	7.0	9.0	0.6	0.1	-4.6	-11.0	-22.0	-23.5
	Daiwa Securities	666	10.2	0.9	10.3	8.6	0.6	0.5	2.3	4.2	-6.0	-5.7
	SBI Holdings	3,065	6.2	1.5	13.4	11.9	1.2	6.5	2.0	4.7	24.7	30.1
	Hang Seng	27,889		1.2	11.3	12.9	1.2	0.8	0.8	-8.5	-8.8	-6.8
중국/홍콩	상해A주 지수	2,854		1.2	10.9	12.2	1.1	-0.2	-0.6	-11.4	-16.3	-17.6
	보험	140		1.2	10.9	11.3	1.9	-3.1	-0.5	-11.9	-21.1	-22.4
	China Life	18	84.2	1.2	10.8	12.1	1.4	-3.6	-9.1	-19.5	-23.9	-27.7
	Ping An Insurance	76	171.6	2.2	11.9	19.6	2.0	2.4	4.5	-2.0	-10.5	-6.8
	AIA	68	104.2	2.3	19.3	12.7	2.5	2.3	0.6	-4.6	3.2	1.6
	증권	87		1.1	15.3	7.2	22.9	-1.6	0.6	-20.5	-28.7	-31.3
	CTIC Securities	14	27.1	0.9	11.9	8.2	2.0	-0.6	-9.6	-28.4	-21.3	-12.8
	Haitong Securities	7	13.2	0.6	8.3	7.0	1.6	-2.4	-10.1	-29.1	-38.3	-38.8
	Huatai Securities	12	17.3	0.8	10.0	8.0	1.9	-2.8	-4.7	-23.3	-25.4	-24.4
	S&P500	2,902		3.3	18.0	18.3	3.6	0.9	2.2	6.1	7.8	8.5
미국	보험	389		1.4	12.0	11.1		0.1	0.5	1.9	0.2	-3.3
	AIG	53	47.2	0.7	11.8	6.5	0.8	-0.3	-3.3	-0.2	-5.8	-10.8
	Metlife	46	45.7	1.0	8.8	10.5	0.7	-1.1	0.6	-1.7	0.3	-9.2
	Prudential Financial	98	41.0	0.9	8.1	12.0	0.6	-0.3	-2.2	-0.6	-5.5	-14.6
	증권	203		2.1	14.7	13.2	1.2	1.2	1.4	-2.6	-3.3	0.1
	JP Morgan	115	385.1	1.6	12.6	13.4	1.3	-0.1	-0.9	5.7	1.0	7.1
	Goldman Sachs	238	93.3	1.2	9.6	12.8	1.0	1.1	0.7	4.1	-7.4	-6.7
	Charles Schwab	51	68.6	3.7	20.8	18.8	1.3	0.5	-0.2	-10.5	-2.4	-1.1
	MSCI Europe	129		1.8	14.5	10.5	1.0	-0.4	-1.9	-1.4	4.0	-2.1
	보험	74		1.1	10.6	12.8	1.0	-0.0	-1.1	-1.2	-1.9	-3.6
유럽	Allianz	184	91.5	1.2	10.4	11.8	0.8	-1.0	-2.5	2.2	-2.7	-4.1
	AXA	22	61.1	0.7	8.7	8.8	3.8	-0.0	0.3	-0.4	-15.7	-12.1
	Prudential plc	1,735	58.3	2.5	11.5	23.2	0.5	0.2	-2.8	-5.7	-5.2	-8.9
	Munich Re	186	32.2	1.0	10.8	9.0	5.5	0.2	-1.6	2.7	1.9	2.8
	증권	71		1.1	14.3	6.5	0.5	-0.8	-3.5	-1.4	-5.5	-10.0
	UBS	16	60.4	1.1	11.0	9.1	1.0	0.4	-4.4	0.3	-12.8	-11.4
	Credit Suisse	15	38.2	0.8	12.4	6.7	0.4	-1.7	-9.1	-5.7	-14.4	-15.3
	Deutsche Bank	10	23.3	0.3	22.9	0.9	0.1	-1.2	-12.5	3.1	-25.1	-38.9

자료: 한국 보험사,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, 한국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,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

8. 주요국 금리 동향

			금리 수준 (%)						변동폭 (bp)				
			현재	1W	1M	3M	6M	연초	1W	1M	3M	6M	YTD
한국	국고채	1 Year	1.725	1.747	1.825	1.849	1.835	1.853	-2.2	-10.0	-12.4	-11.0	-12.8
		3 Year	1.910	1.957	2.125	2.195	2.265	2.134	-4.7	-21.5	-28.5	-35.5	-22.4
		5 Year	2.102	2.172	2.362	2.477	2.517	2.347	-7.0	-26.0	-37.5	-41.5	-24.5
		10 Year	2.310	2.377	2.570	2.695	2.735	2.467	-6.7	-26.0	-38.5	-42.5	-15.7
일본	국고채	1 Year	-0.111	-0.117	-0.112	-0.140	-0.157	-0.145	0.6	0.1	2.9	4.6	3.4
		10 Year	0.107	0.101	0.062	0.040	0.053	0.048	0.6	4.5	6.7	5.4	5.9
중국	국고채	1 Year	2.845	2.847	2.857	3.171	3.287	3.834	-0.2	-1.2	-32.6	-44.2	-98.9
		10 Year	3.595	3.634	3.487	3.638	3.845	3.902	-3.9	10.8	-4.3	-25.0	-30.7
미국	국고채	1 Year	2.447	2.425	2.409	2.223	2.056	1.732	2.3	3.9	22.4	39.1	71.6
		10 Year	2.860	2.810	2.960	2.859	2.861	2.405	5.1	-9.9	0.2	-0.0	45.5
유럽	국고채	1 Year	-0.528	-0.524	-0.538	-0.565	-0.569	-0.611	-0.4	1.0	3.7	4.1	8.3
		10 Year	0.326	0.345	0.443	0.341	0.656	0.427	-1.9	-11.7	-1.5	-33.0	-10.1

자료: Bloomberg

Compliance Notice

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,  
▶ 회사는 해당 종목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▶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  
▶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 
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강승건)  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 
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  
1. 종목추천 투자등급 (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)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.(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)  
- Buy(매 수): 추천일 증가대비 +15%이상 - Hold(보유): 추천일 증가대비 -15% ~ 15% 내외 등락 - Sell(매도): 추천일 증가대비 -15%이상  
2. 산업추천 투자등급 (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)  
- Overweight(비중확대), - Neutral (중립), - Underweight (비중축소)